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변덕스런 '브리티시'... 최나연, 바람을 뚫어라

최나연(26·SK텔레콤)이 4일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에서 열린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 15번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오후 7시 40분(한국시간) 현재 모건 프레스(미국)이 9언더파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한타 뒤진 2위, 박희영과 최나연, 사이키 미키(일본),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7언더파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노렸던 박인비는 이븐파 216타를 기록하며 공동 28위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벼랑에 선 KIA '가을 기적' 이룰까

새 용병 빌로우 선발에 윤석민 마무리 자원

벼랑 끝에 선 KIA가 윤석민 마무리 카드를 빼어 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윤석민과 새로운 외국인 선수 빌로우로 마운드 새관을 짰다. 빌로우는 양현종과 함께 좌완 선발로 양축을 구축하고 에이스 윤석민은 뒤로 자리를 옮긴다. 윤석민이 직접 자원을 해 선발이 아닌 마무리로 팀 승리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윤석민의 마무리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앤서니의 잇단 실패로 7월에도 선수단 내부에서도 윤석민의 마무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선발 자원이었다면 앤서니가 마무리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양현종의 부상, 서재응과 소사의 부진까지 겹치는 등 선발 로테이션이 우선 급했던 만큼 구상으로만 끝났었다.

8월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번번이 뒷심싸움에서 밀리면서 팀이 4강의 기로에 섰다. 더 이상 밀릴 수도 없는 연패의 악재 속에 두 좌완의 합류라는 호재가 맞물리자 윤석민이 감독실 문을 두드렸다.

부상 여파로 올 시즌을 완벽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잘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뗀 윤석민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을지까지는 걱정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해줘야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위해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선발전에 힘이 실린 만큼 뒤에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 선동열 감독도 윤석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무리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4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김진우를 선발로 내세운 KIA는 우천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밀린 소사를 6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 투입한다. 이후에는 양현종과 빌로우가 선발로 대기를 한다.

선발 마지막 한자리는 유동적이다. 서재응과 송은범의 컨디션에 따라서 불펜 조각이 달라진다. 선동열 감독은 송은범을 통 릴리프로 우선 계산을 해두었지만 서재응의 상황에 따라 선발진으로의 이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선발과 마무리가 안정되면 박지훈도 통 릴리프로 활용된다.

변화의 시작점이 된 빌로우는 4일 불펜 피칭을 통해 타이거즈의 일원으로 새출발을 했다.

피칭을 지켜본 선동열 감독은 "실전에서 모습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낮게 던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형이라 각이 좋다. 타점도 괜찮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오늘은 60~70% 전력으로 던진 것 같은데 시차까지 감안하면 괜찮은 것 같



빌로우가 4일 무등 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빌로우는 8일 선발투수로 등판할 예정이다.

다"고 좋은 점수를 준다.

빌로우도 '가을 기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빌로우는 "누나가 한국에서 공군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 친구들도 있어서 한국이 친숙하다. 동료들도 원래 있던 선수인 것처럼 잘 대해준다"며 "한국에 오기 전에 (같이 뛰었던) 아담(NC)에게 메일을 보내어

편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다른 리그에서 뛰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다. 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몰랐지만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최선을 다해서 팀의 순위 싸움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고선수 신화 꿈꾸는 동성고 출신 넥센 문우람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서 멀티히트 "기분 너무 좋아요"

지난 2일은 프로야구 선수 문우람이라는 이름으로 찾은 첫 고향 방문날이었다.

확장시절 추억이 담겨있는 무등경기장. 경기를 준비하던 동성고 출신의 넥센 문우람은 "프로와서 처음으로 무등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기분이 좋긴 한데 아직 타석에 서지 않아서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답답하게 고향에서의 첫날을 기록하면서 고향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에 오른 뒤의 소감은 "기분이 좋다"였다. 다른 미사여구는 없는 간단한 소감이었지만 문우람의 벅찬 감정이 담긴 진한 말이었다.

문우람은 강한 어깨와 승부 근성, 재치있는 타격으로 동성고의 주축선수로 활약했지만 프로지명을 받지 못했다. 고민 끝에 대학 대신 신고선수를 선택하며 2011년 프로 도전에 나섰다.

독한 담금질 끝에 지난해 가을 엔트리 확장과 함께 처음 1군 무대를 밟았던 문우람은 타격보다는 빨랫줄 송구로 우선 어필을 했다. 올 시즌에는 외야의 부상 속에 기회를 얻은 뒤 2군 캠프지인 강전에서 이를 악물며 준비했던 것을 원 없이 보여주 고 있다. 6월22일 N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2일까지 25경기에 나와 0.388의 타율과 함께 2홈런 12타점 24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타석에서의 때서운 눈빛으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우람은 "강진 캠프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원래 작은 것 하나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타석에서도 집중을 하느라 그런 눈빛이 나오는 것 같다"며 "사람들에게 문우람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알고 싶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꼭 성공해서 모교후배들도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류현진 데뷔 첫해 10승 달성

ML 새역사 계속 쓴다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한국 투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프로야구

에 데뷔한 해에 두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지난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5.1이닝 동안 안타 11개를 맞았다.

11피안타는 6월 13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한 경기 개인 최다 피안타 타이이다.

그러나 불넷을 주지 않고 고비마다 삼진 6개를 속아 내며 상대 타선을 2점으로 봉쇄한 류현진은 팀이 6-2로 앞선 6회 1사 1,2루에서 마운드를 J.P.하월에게 넘겼다.

하월이 1사 만루 고비에 몰렸으나 데이비드 데헤수스를 2루수 병살타로 잡아내 류현진의 추가 실점은 없었다.

경기가 그대로 끝나 류현진은 4연승과 함께 시즌 10승(3패)째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3.14에서 3.15로 약간 올라갔다.

이로써 류현진은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인 투수 중 최초로 데뷔 해에 10승 달성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치지 않고 국내리그에서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거둔 성과에서의 의미를 더했다.

류현진의 미국 진출 전까지 8명의 한국인 투수 가운데 메이저리그 신인 자격을 갖춘 시즌에 최다승을 올린 투수는 서재응(현 KIA)이었다. 2003년 뉴욕 메츠에서 풀타임 데뷔한 서재응은 그해 9승(12패)을 거뒀다.

통산 124승으로 아시아 투수 최다승을 남긴 '코리아 특급' 박찬호가 1996년 4월 7일 메이저리그 첫 승리를 거둔 리글리필드에서 류현진은 10승을 달성해 더욱 뜻깊은 발자국을 찍었다.

류현진은 2002년 14승을 거둔 일본인 원소 투수 이시이 가즈히사(현 일본 세이부) 이후 다저스 투수로는 11년 만에 10승을 올린 신인이 됐다. /연합뉴스

김응용 감독, 1500승 금자탑

KT 초대 사령탑에 조범현

최고령 사령탑인 김응용(73) 한화 이글스 감독이 국내 프로야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응용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는 지난 3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와의 방문경기에서 4-2로 역전승했다. 이로써 프로야구 최장수·최고령 사령탑인 김 감독은 최초로 통산 1500승(66부 1195패) 고지에 올라섰다.

프로야구 감독 최다승 2위는 2011시즌 중반까지 SK 와이번스를 이끌던 김성근 감독으로 1234승(57부 1036패)을 기록했다.

23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김 감독은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해태 타이거즈(1983~2000년)에서 1천164승(49부 934패·승률 0.555)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2001~2004년)에서는 312승(16부 204패·승률 604)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제10구단 KT 위즈가 초대 감독에 조범현 전 KIA 감독을 선임했다.

KT는 포수 육성 전문가로 현재 삼성 라이온즈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인 조범현 감독과 3년간 계약금 포함 총액 15억원에 계약했다.

KT는 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조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을 연다.

2009년 KIA 타이거즈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조 감독은 이로써 SK 와이번스(2003~2006년), KIA(2007~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팀의 지휘봉을 잡는다.

프로야구 신생팀 감독으로 2년 만에 돌아오는 조 감독은 "현대 야구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 우리 팀 선수들이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스피드, 젊음, 패기 등을 최대한 앞세워 KT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선수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